

가가유젠

가가유젠은 ‘고사이(오채)’라고 불리는 독특한 5 가지 색상을 기조로 하여 선명하고 사실적인 자연의 이미지를 손으로 그린 무늬로 비단 천에 표현하는 수백년의 역사를 가진 염색기법입니다. 이는 교토의 교유젠, 도쿄의 에도유젠과 함께 ‘일본 3 대 유젠’ 중 하나로 꼽힙니다. 가가유젠은 가방이나 스카프 등 천으로 만든 소품뿐만 아니라 고급 기모노 장식에도 널리 사용됩니다.

가가유젠의 역사는 16 세기, 현재의 이시카와현에 해당하는 가가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가가번은 일본을 대표하는 견직물의 주요 생산지였으며, 단색 염색기법인 ‘우메조메’가 있었습니다. 18 세기 초, 유명한 비단부채 그림장인이었던 미야자키 유젠(?~1758)이 염색으로 문양을 표현한다고 하는 획기적인 염색기술을 가가번에 도입했습니다. 유젠이 고안한 풀을 이용한 정교한 방염법을 통해 손으로 그린 복잡한 무늬를 염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염료를 밀어내는 수용성 쌀풀을 사용함으로써 다채롭고 정교한 디자인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법은 오늘날에도 가가유젠의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가가유젠은 벌레가 갉아먹은 잎이나 시든 잎 등 자연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도안으로도 유명합니다. 이는 자연의 덧없음과 연약함을 나타내는 ‘무시쿠이’라는 기법입니다. 또, 가가유젠의 디자인에서는 교유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금이나 은을 사용한 화려한 장식은 많이 볼 수 없습니다. 에도유젠이 차별한 색조를 특징으로 하는 반면, 가가유젠은 ‘가가고사이(가가오채)’라고 불리는 남색, 연지, 황토, 풀색, 고대 자주색의 5 가지 색상을 기조로 한 색채가 사용됩니다.

유젠조메는 1955 년에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이시카와현에서는 1955 년에 기무라 우잔(1891~1977), 2010 년에 후타쓰카 오사오(1946~)가 각각 보유자로 인정받았습니다.